

코오롱스포츠 '중국시장 겨냥' 모델 기용

장동건·탕웨이, 아웃도어를 입다

OUTDOOR & TREND
아웃도어 브랜드 가을시즌 '모델 전쟁'

마모트 '박형식' 내세워 전연령대 공략
노스케이프, 최민수·하지원 화보 선보
코베아는 윤호·지아 가족 모델로 발탁

홍보를 위한 모델은 브랜드의 얼굴이다. 어떤 모델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는 패션 브랜드의 한 시즌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별 다를 것은 없다. 봄과 함께 연중 아웃도어 대목인 가을시즌을 맞아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간판모델은 물론 새로운 얼굴을 앞세워 가을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동건·탕웨이 기용한 코오롱스포츠 "중국시장도 노린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몰고 온 브랜드는 코오롱스포츠이다. 지난해 이승기와 이민정을 모델로 내세웠던 코오롱스포츠는 올해 들어 스타 마케팅을 잠시 접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40주년 관련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박찬욱, 김지운 감독과 진행한 필름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